

주요개념 : 아동학대 경험, 아동학대 인식

대학생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아동학대 인식간의 관계연구*

문진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이와 같은 아동학대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 희랍시대부터 존재하여 왔으며 전 세계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학대 그 자체로 인한 즉각적인 결과 뿐 만 아니라 아동학대 희생자의 삶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WHO, 1999).

특히 아동에게 가해진 모든 형태의 학대는 그들의 신체 손상 뿐 만 아니라 일생을 통해서 치료하기 힘든 마음의 깊은 상처로 남을 수도 있으며, 다수의 아동학대 연구에서 어린 시절에 받은 학대의 경험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정체성의 문제, 대처능력의 문제, 우울증, 공격성, 낮은 학업성취도,

높은 자살 충동률 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혀지고 있다(Belt & Abidin, 1996; Bolger & Patterson, 2001; Cohen, Mannarino, & Deblinger, 2006; Ethier, Lemelin, & Lacharite, 2004; Fox & Gilbert, 1994; Lopez & Heffer, 1998; Widom, 1989).

이에 정부차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센터의 설립, 아동학대 방지법 제정, 보호체계의 정비, 아동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신고 의무화 등의 사회적 아동보호망을 구축하였고, 2008년도 한 해 전국의 아동학대 예방 센터에 총 9,570건이 신고 접수 되었으며, 이중 아동 학대 의심 사례건수는 7,219건(75.4%)건으로 보고되어 아동 학대 신고 접수 통계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National Child Protect Agency, 2008),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까지도 아동학대의 한 형태인 체벌이나 정서적으로 괴롭히기 등을 허용하는 사회 문화적 분위기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를 양육의 한 형태로 사용하고 있고 아동학대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양

* 본 연구는 2006년도 여주대학 교내 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여주대학 간호과, 부교수

교신저자 문진하 : mjh612@hanmir.com

육 형태가 자연스럽게 양육의 방법으로 자리 잡아 세습되고 그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자녀를 둔 부모들도 어떤 행동이나 상태가 아동학대 인지 잘 모르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Doe, 2000). 그러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상당히 많은 사례들은 심각한 학대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사회는 아동학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 일어나는 학대를 학대로 보지 않는 이중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면서도 허용되어지고 묵인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신체 학대인 체벌을 하고도 아동학대로 보지 않으며 또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기보다는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여 자녀에게 체벌을 하여도 괜찮다고 인지하거나 극단적으로는 동반자살을 하는 등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중성의 원인은 전통적인 문화, 습관들로 인해 생겨난 고정관념과 윤리적 잣대의 불일치로 볼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인식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이러한 이중적 사고와 인식이 아동학대를 유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아동학대 인식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학대 인식과 관련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필수적이다.

인식이란 그것의 의의를 바르게 이해하고 판별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모든 행동이 그러하듯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 전에 먼저 그에 관련된 생각, 사상, 신념 등의 인식을 통해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올바른 인식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중요한 선행조건이다. 그러나 기존 인식 연구의 대부분이 일반인이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인식 정도나 실태에 파악(Ha, 2003; Kim, W. H., 2004; Lee, 2000; Yun, 2004)에 머물러 아동학대 인식이 어떻게 형

성되는지 또한 어떤 요인이 아동학대 인식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았다.

아동학대 인식은 부모로부터의 양육 경험이나 학대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Song(2006)의 연구에서 부모로부터 수용적인 양육경험을 많이 할수록 자녀는 아동학대를 인식함에 있어 좀 더 민감할 수 있으나 거부적인 양육 경험을 하면 아동학대 인식에 둔감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과거에 학대 받았던 부모들은 학대 받지 않았던 부모들 보다 자녀 학대를 좀 더 당연시 하는 경향이 있고(Park, 1999), 부모로부터 신체학대를 받았던 경우 신체학대를 당연한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왜곡된 인식을 형성한다(Kim, 2006). 즉 둔감한 아동학대 인식은 자신들이 부모에게 받았던 학대를 포함한 양육 경험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Altemeier, O'Connor, Sherrod와 Tucker(1986)는 양육자의 아동기에 경험한 학대가 현재 다른 위기적 특징을 야기하여 스트레스를 극대화시켜 궁극적으로 아동학대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고, 과거에 학대를 경험한 양육자가 반드시 현재 아동을 학대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들은 높은 체벌허용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Ju(2001)의 연구에서 여성의 아동기 학대 경험 유무가 체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아동학대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에 의해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세대 간 전승이 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어린 시절 학대경험은 아동학대 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아동학대 인식과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가 거의 없어 아동기에 받았던 학대경험과 아동학대 인식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학

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본 연구에서는 예비 부모로서의 대학생이 자신이 경험한 아동기 학대경험 정도와 아동학대 인식 수준을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련성이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나 부모교육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아동학대의 발생률을 낮추거나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목적은 대학생의 아동학대 경험, 아동학대 인식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아동기 학대 경험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아동학대 인식 정도를 확인한다.
- 3)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경험, 아동학대 인식 정도의 차이를 확인한다.
- 4) 대상자가 인지한 아동학대 경험, 아동학대 인식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아동학대 경험과 아동학대 인식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 관계 연구이다.

2. 연구 도구

1) 아동학대 측정

아동학대 측정은 Briere와 Runtz(1988)의 심리학대와 신체학대에 관한 문항을 Park(1999)이 수정 보완한 아동학대 설문지로 측정하였다. 학대경

험은 과거의 경험을 회상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방임은 그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성적학대는 그 특성이 다른 학대유형과 차별적인 면이 있으므로 제외한다.

심리학대는 7개 문항으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받은 경험을 토대로 18세 혹은 그 이전에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를 어머니, 아버지에 각각 기록하도록 하였다. 심리학대는 평균적인 해를 기초로 하여 기록하였는데, 심리학대를 평균적인 해를 기초로 하여 기록하는 이유는 심리학대는 신체학대에 비해 보다 자주 일어나며 사건과 관련되는 경향이 덜하므로 시간개념으로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척도는 0점은 한 번도 없었음, 1점은 1년에 한번, 2점은 1년에 2번 정도, 4점은 1년에 3~5번 정도, 8점은 1년에 6~10번, 15점은 1년에 11~20번, 20점은 1년에 20번 이상으로 점수화 하였다. 부와 모의 점수를 합산하여 부모의 심리학대 점수를 갖게 되는데 이는 0점~280점을 받을 수 있다. Park(1999)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91$ 로 나타났다.

신체학대는 7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에 대해서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18세 혹은 그 이전에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신체학대는 가장 심했던 1년을 중심으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신체학대도 심리학대와 동일한 과정에 의하여 점수화 하였으며 Park (1999)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94$ 이었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92$ 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경험은 부모로부터의 심리학대, 신체학대를 합한 것으로 이는 0점~560점의 범위를 가지게 된다.

아동학대 측정의 제한점은 과거를 회상하여 어린 시절 아동학대 경험을 자가 보고식으로 기록하

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억의 왜곡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아동학대 인식

Kim, W. H.(2004)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수정 보완해서 사용하였다. 신체학대 12문항, 정서학대 9문항, 방임 10문항, 성학대 7문항으로 총 38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5점 척도이고 가능 점수범위는 0~4점이다. Kim, W. H.(2004)의 연구에서는 신뢰도계수는 Cronbach's $\alpha = .95$ 였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92$ 로 나타났다.

3.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대상자는 경기, 인천, 전남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 4년제 3개교에서 총 8개의 수업을 편의 선정하였다. 담당교수가 직접 수업 전에 대상자에게 연구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비밀보장, 설문지 내용 및 기재 요령을 설명하고 구두로 동의를 얻은 학생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자가 보고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료수집은 2008년 4월 5일에서 20일까지 이루어졌다.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5부를 제외하였고, 51세로 연령상 본 조사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응답자 1명을 제외하였으며, 편모, 편부 가정의 경우가 8부 있어 이들은 분석결과가 전체 집단과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았고 분석상의 어려움이 있어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231명의 응답자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아동학대 경험, 아동학대

인식은 빈도, 백분율, 평균을 구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경험, 아동학대 인식을 알기위해 t-test, ANOVA와 사후검정을 위해 Sheffe 검정을 적용하였다. 대상자의 아동학대 경험과 아동학대 인식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1.3 ± 2.0 세였다. 여학생은 165명(71.4%)이었으며 남학생은 66명(28.6%)이었다. 아동학대 신고 의무과인 간호과 학생은 110명(47.6%)이었고, 아동학대 신고의무과가 아닌 학생은 121명(52.4%)이었다. 가정의 경제수준은 월수입 300만원 이상이 91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도 12명(5.2%)이었다. 종교는 무교인 학생이 118명(51.1%)으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가 인지하는 아동 학대 발생률은 '많이 일어난다'가 130명(56.3%)으로 가장 많았고, 주로 아동학대를 알게 된 계기는 전원이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2. 대상자의 아동기 학대 경험 및 아동학대 인식

아동기 학대 경험으로는 심리학대와 신체학대가 부모 각각에 의해서 어느 정도 발생되었는지 조사되었다. 어머니로부터 어떠한 항목으로든지 심리 학대에 해당하는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96명(84.8%)이었다. 아버지로 부터 어떠한 항목으로든지 심리 학대에 해당하는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89명(81.8%)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31)

Variable	Category	n	%	M±SD
Age				21.3±2.0
Gender	Female	165	71.4	
	Male	66	28.6	
Major	Nursing	110	47.6	
	Other	121	52.4	
Economic status	< 1 million won	12	5.2	
	1~2 million won	43	18.7	
	2~3 million won	85	36.8	
	> 3 million won	91	39.4	
Religion	None	118	51.1	
	Christianity	57	24.7	
	Roman catholicism	39	16.9	
	Buddhism	14	6.1	
	Others	3	1.3	
Perception of frequency for child abuse	Very often	54	23.4	
	Often	130	56.3	
	Common	39	16.9	
	Rarely happened	8	3.5	
How to know about child abuse	Mass media	231	100	

어머니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지 적어도 일 년에 1회 이상 신체 학대에 해당하는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99명(42.9%)이었다.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항목으로든지 신체 학대에 해당하는 경험을 하였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86명(37.2%)이었다.

부모로부터 신체 학대와 심리 학대를 어떤 항목도 경험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16명(6.9%)였으며, 215명(93.1%)이 부모로부터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의 아동기 학대 경험은 평균 29.5±46.4(0~268)으로 나타났으며, 부모간의 학대경향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심리 학대를 많이 하고, 아버지가 신체 학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2>.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도는 0~4점의 점수 범위 중 3.22±0.42점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의 유형별 인식도는 성학대에 대한 인식이 3.63±0.4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방임에 대한 인식은 1.24±0.2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hild abuse perception (N=231)

	Item Mean±SD
Child abuse perception	3.22±0.42
physical abuse	3.28±0.42
psychological abuse	3.30±0.59
child neglect	1.24±0.27
sexual abuse	3.63±0.48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경험, 아동학대 인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경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특성이 없었으며, 학대인식은 성별(t=3.4, p<0.01), 학과(t=4.1, p<0.01), 인지된 아동학대 발생률 (F=5.3,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사후검정 결과 아동학대 발생률을 '보통' 이상으로 인지한 학생들이 '별로 일어나지

〈Table 2〉 Child abuse experience

(N=231)

	Mean±SD	Range	t	p
Child abuse experience	29.5±46.4	0~268		
psychological abuse from mother	12.7±21.1	0~140	1.2	.20
psychological abuse from father	10.9±21.2	0~140		
physical abuse from mother	2.7± 8.8	0~ 90	-80	.41
physical abuse from father	3.2±12.1	0~130		

*p<.05, **p<.01

<Table 4> Difference of child abuse experience and child abuse perception followed general characteristics (N=231)

Variable	Category	Child abuse experience			Child abuse perception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Female	27.5±43.6	-1.0	.30	124.8±13.9	3.4	.00**
	Male	34.5±52.8			116.3±18.1		
Major	Nursing	23.8±38.0	-1.8	.07	126.7±12.5	4.1	.00**
	Other	34.7±52.5			118.5±17.2		
Economic status	< 1 million won	61.3±77.8	2.2	.09	119.4±20.5	2	.89
	1~2 million won	32.7±51.2			121.9±17.5		
	2~3 million won	26.7±40.9			122.4±13.8		
	> 3 million won	29.5±42.6			123.0±16.0		
Religion	None	27.0±43.4	1.0	.42	122.4±16.3	.7	.57
	Christianity	24.8±31.8			120.0±14.4		
	Catholicism	38.8±63.9			125.5±15.0		
	Buddhism	44.3±63.6			122.1±18.2		
	Others	25.7±20.8			125.4± 3.2		
Perception of frequency for child abuse	Very often ^a	31.4±52.9	1.2	.28	125.7a±16.33	5.3	.00**
	Often ^b	25.1±34.1			122.8b±14.1		
	Common ^c	37.5±65.8			120.3c±17.2		
	Rarely happened ^d	48.8±57.5			103.4d±16.6		

*p<.05, **p<.01

않는다고 인지한 학생들보다 유의하게 학대 인식이 높았다<Table 4>.

4. 연구 변수간의 상관관계

대학생의 아동기 경험한 학대경험과 아동학대 인식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아동학대 경험과 아동학대 인식 간($r=-.17, p<.01$)에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였으나 상관관계가 약한 것으로 나왔으며, 아동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신체학대($r=-.21, p<.01$)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IV. 논 의

저출산 시대에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 할 수 있는 기회를 권리로써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각 가정과 사회에서는 이들을 올바르게 양육할 책임을 갖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아동학대는 진행 중인 사회문제이다.

본 연구 대상자인 대학생의 아동기 학대 경험 결과 부모로부터 신체학대나 심리학대를 받았다고 기억하는 대상자는 전체의 93.1%로 대상자의 10명 중 9명 정도가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경미하거나 심각한 학대를 경험하여 한국 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만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같은 도구로 국내 대학생을 측정한 Park(1999)의 연구

<Table 5> Corelation of child abuse experience and child abuse perception

	Child abuse perception	Physical abuse	Psychological abuse	Child neglect	Sexual abuse
Child abuse experience	-.17**	-.21**	-.11	-.05	-.16*

*p<.05, **p<.01

에서 95%의 응답자가 아동기에 심리 혹은 신체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 한 것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어 10여년 전이나 아동학대 발생률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같은 연구도구로 측정된 것은 아니어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부부폭력 가해자인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Kim, Lee와 Chung(2007)의 연구에서는 부부폭력 가해자인 아버지의 성장기 부모로부터 받은 언어학대와 신체학대를 포함한 전체 아동학대 경험율이 75.1%로 보고되었고, 여대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경험을 조사한 Kim과 Choi(2005)의 연구에서는 신체학대만을 조사하였는데 어떤 형태로든 신체학대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3.2%였다.

그 동안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나 신고율이 증가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의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정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대학생 대상자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보면 같은 연령의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안정적인 양육 환경에서 성장하였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아동기 학대 경험에 대한 조사로써 상당히 보수적인 표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사의 결과들과 비교하면 아동학대의 발생 빈도는 그다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동기의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경험은 장기적으로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에 대하여 역기능적 양육의 극단적인 형태인 학대를 재현할 가능성이 높아(Folsom, Christen, Avery, & Moore, 2003; Guterman & Lee, 2005), 세대 간 전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편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의 심각도에 따른 학대경험을 파악한다면 보다 포괄적인 아동기 학대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아동기 학대 경험의 평균값은 $29.5 \pm 46.4(0 \sim 280)$ 으로 이 점수가 의미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어떤

유형의 학대이든지 1년에 한 번 정도의 학대를 받는 것으로 학대 정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학대 정도를 염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측정하고자 한 변수가 '학대'로 분류되는 만큼 그 내용이 비교적 심각한 것으로 여겨진다.

부모간의 학대 경향의 차이를 비교하면 어머니로부터 부터 심리학대, 아버지로 부터 신체학대를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아동양육에 더 많이 참여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아버지 보다 어머니가 심리학대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들(Briere & Runtz, 1988; Park, 1999; Kim, 1998)도 있으나, 경향만 일치할 뿐 연구결과를 지지 하지는 못하였다. 신체학대의 경우 Kim(1998)의 연구에서 아버지가 어머니 보다 학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연구결과를 통계적으로 지지하지 못하였다. 아버지로 부터 신체학대 평균은 표준편차가 어머니 보다 커서 대상자들이 아버지로 부터 다양한 수준으로 신체학대를 경험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대학생의 아동학대 인식은 0~4점의 점수 범위 중 3.22 ± 0.42 점으로 비교적 높은 인식도를 나타내었고, 성학대, 신체학대, 정서학대는 비슷한 수준으로 인식이 높았다. 그러나 방임은 1.24 ± 0.27 로 학대 상황을 아동학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현저하게 인식정도가 낮았다. 일반적으로 아동에게 명백하게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심각한 행위보다는 그 심각성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되는 방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낮은 것으로 여겨진다. 미취학 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인식을 조사한 Kim, W. H.(2004)의 연구에서 전체 학대인식이 3.32점 정도로 조사되어 본 연구와 유사하였으며,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는 비슷한 수준의 인식도를 보였으나 방임에 대한

인식은 3.0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아동학대 영역 중 방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은 Ha(2003)의 연구,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 Yun과 Lee(2006)의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나왔으며, 한국 부모의 아동방임에 대한 인식 연구에서(Choi, 2008) 한국 부모들은 아동방임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여 일관되게 연구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2008년도 아동학대 사례 유형별 건수 중 방임이 2,237건(40.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National Child Protect Agency, 2008), 방임에 대한 낮은 인식이 높은 수준의 방임 유형의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아동 방임에 대한 방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정도로 방임에 대한 관심은 다른 학대 유형보다 적었으며 그 문제도 심각하게 다루지 못하였다(Wolock & Horowitz, 198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경험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으며 학대 경험이나 영향이 남녀 성별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Belt & Abidin, 1996)가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는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요구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의 차이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왔으며 이는 Kim, J. M.(2004)과 Lee(2000)의 연구와 일치하며, 가정에서 육아의 상담 부분을 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대상자의 전공학과를 아동학대 신고 의무과와 신고 비의무과로 구분하여 분석한 바 아동학대신고 의무과인 간호과 학생의 아동학대 인식정도가 높아 전공 교육과정 중 아동학대 관련 내용의 습득으로 아동학대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여겨진다. 아동학대의 발생 빈도가 보통 이상으로 발생한다고 인지한 대상자의 아동학대

인식도가 높은 것은, 아동학대 인식이 높아 아동학대 발생 빈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Kim, J. M.(2004)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매스컴에서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들을 보도하고 홍보한 영향이라 생각하며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수준, 종교에 따른 아동학대 인식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왔다.

대학생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아동학대 인식 간에 관련성이 낮아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아동학대 인식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아동 학대 인식의 하위변인 중 신체학대 인식과 아동기 학대경험과 역상관계가 있어 아동기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신체학대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경험은 부모의 폭력적 행동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허용하는 태도도 형성한다고 하였는데(Kalmuss, 1984) 본 연구결과도 이러한 맥락에서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어린 시절의 피양육 경험과 아동학대 인식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Kim, W.H.(2004)의 연구에서 양육자의 아동학대의 인식도는 공격-적대, 무시-무관심, 모호한 거부에 대한 양육경험을 할수록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본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Kim과 Kim(2007)에서는 양육자의 피학대력과 체벌허용도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으며, Ju(2001)에서도 여성의 아동기 피학대 경험 유무가 체벌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어 아동기의 학대경험이 성인이 되었을 때 폭력과 체벌에 대해 허용하는 태도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아동기 학대 경험과 아동학대 인식과의 관련성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결과 아동학대의 심각도는 낮지만 대다수의 대상자들이 아동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실태가 밝혀졌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 경험과 신체학대 인식 간에 역상관 관계가 있어 아동학대의 경험이 많은 대상자는 신체학대에 대한 인식이 낮아 아동학대가 다음 세대로 전이가 가능하므로 세대 간 학대의 단절을 위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신체적 학대나 심각한 학대는 매스컴의 보도 등으로 높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방임에 대한 인식은 낮아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진행시 이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아동기 학대경험과 아동학대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써 아동학대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개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편의 표출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거친 연구도구를 사용하여 2008년도 4월 5일에서 2008년도 4월 20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231부의 자료는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 대상자의 아동기 아동학대 경험은 215명(93.1%)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다고 보고하였고, 평균 학대점수는 29.5±46.4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인식은 3.22±0.42(0~4)으로 비교적 높았으나, 방임은 1.24±0.27로 인식이 낮아 아동방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고 좀 더 관대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 본 결과 학대인식은 성

별, 학과, 인지된 아동학대 발생률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학대경험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아동기 학대경험과 신체학대 인식은 역상관 관계를 나타내어 아동기 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신체학대 인식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연구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연구에서 대상자를 달리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하위 영역별 인식을 연구하는 수준에 머물렀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인식과 아동기 학대 경험에 대한 관련성을 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아동학대 경험은 과거를 회상하여 자가 보고식으로 기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부정확한 기억으로 인해 정확히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성학대 경험과 방임 경험이 보고되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References

- Altemeier, W. A., O'Connor, S., Sherrod, B., & Tucker, D. (1986). Outcome of abuse during childhood among pregnant low income women. *Child abuse & Neglect*, 10(3), 319-330.
- Belt, W., & Abidin, R. R. (1996). The relation of childhood abuse and early parenting experiences to current marital quality in a nonclinical sample. *Child abuse & Neglect*, 20, 1019-1030.
- Bolger, K. E., & Patterson, C. J. (2001). Developmental pathways from child maltreatment to peer rejection. *Child Development*, 72(2), 549.
- Briere, J., & Runtz, M. (1988). Multivariate correlates of childhood psychological and physical maltreatment among university women. *Child Abuse & Neglect*, 14, 331-341.

-
- Briere, J., & Runtz, M. (1988). Multivariate correlates of childhood psychological and physical maltreatment among university women. *Child Abuse & Neglect, 12*, 331-341.
- Choi, J. B. (2008). Korean Parents' Perceptions of Child, *Dongkwang, 104*, 1-39.
- Cohen, J. A., Mannarino, A. P., & Deblinger, E. (2006). *Treating trauma and traumatic grief in children and adolescents*. NY: Guilford Press.
- Doe, S. S. (2000). Cultural factors in child maltreatment and domestic violence in Korea.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2*(3/4), 231-236.
- Ethier, L. S., Lemelin, J. P., & Lacharite, C. (2004). A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s of chronic maltreatment on children's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Child Abuse & Neglect, 22*, 183-195.
- Folsom, W. S, Christen, M. L, Avery, L., & Moore, C. (2003). The co-occurrence of child abuse and domestic violence: An issue of service delivery for social professionals. *Child &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0*(5), 375-401.
- Fox, K., & Gilbert, B. (1994). The interpersonal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women who experienced child psychological abuse, incest, and parental alcoholism. *Child Abuse & Neglect, 18*, 849-858.
- Guterman, N. B., & Lee, Y. K. (2005). The role of fathers in risk of physical child abuse and neglect: Possible pathways and unanswered questions, *Child Maltreatment, 10*(2), 136-152.
- Ha, E. K. (2003). *A study on the status of child abuse and its related variables -Based on a primary school in Daegu*,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 Ju, J. H. (2001). *A study on the factors of child abuse behaviors made by moth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Kalmuss, D. (1984).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agg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11-19.
- Kim, J. M. (2004).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emergency medical personnel on child abu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Ulsan.
- Kim, J. Y. (1998). Child abuse in Korean families data from national family violence surve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6*, 41-64.
- Kim, J. Y., & Choi, J. H. (2005). Study on the effect of child abuse experience on the mental health and social lives of college wome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0*(2), 22-47.
- Kim, J. Y., Lee, J. H., & Chung, Y. K. (2007). The effect of spouse violence perpetrator's child abuse experience during childhood on abusing one's own childre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35*, 291-312.
- Kim, K. H. (2006). A case study of delinquents' physical child abuse experiences and violent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4*(1), 23-37.
- Kim, K. H., & Kim, H. O. (2007). Study on social information process factors of child abuse and intervention if social support. *Korea Journal of Social Work, 20*(8), 37-70.
- Kim, W. H.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pre-*

- school children parents' experience of caregiver's childhood and child abuse aware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 Kim, Y. H., Yun, E. Y., & Lee, N. Y. (2006). A survey on perception of child abuse among nurses in a general hospital. *J Korean Soc Child Health*, 10(2), 189-197.
- Lee, S. Y. (2000).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the mandatory reporters of child abu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 Lopez, M., & Heffer, R. (1998). Self concept and soci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 victims of childhood physic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22, 183-195.
- National Child Protect Agency. (2008). *National Child Abuse Report 2007*. Seoul, Korea: Dae Seung Sa..
- Park, E. M. (1999). *Effects of childhood abuse and perceived parenting attitude on early adulthood intimate relationship quality*, Unpublished doctoral thesis, Yonsei University
- Song, E. J.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primipara's experience of parental acceptance rejection and perception of child abu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WHO (1999). WHO recognizes child abuse as a major public health problem. Retrived from <http://www.who.int/inf-pr1999/en/pr99-20.html>
- Widom, C. S. (1989). Childhood victimization: early adversity, later psychopathology.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Journal*, 1, 2-9.
- Wolock, I., & Horowitz, B (1984). Child maltreatment as a social problem: The negl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4(4), 530-543.
- Yun, O. B. (2004).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experiences of nurses at pediatrics ward about child abus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ABSTRACT

Key Words : Child abuse experience, Child abuse perception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Experience of Childhood and Child Abuse Perception in College Students

Moon, Jin H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experience of childhood and child abuse perception in college students.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31 college students by convenience sampling. The collected data were processed using SPSS program and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 correlation. **Results:** 93.1% of the college students were abused by their parents during

childhood. Child abuse perception was very high with a mean score of 3.22(range 0~4). Child abuse percep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major, perception of frequency for child abuse. There was a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child abuse experience and physical abuse perception. **Conclusion:** It is suggested that intervention programs to enhance child abuse perception will help reduce child abuse.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Yeosu Institute of Technology